

지속 가능한 생태계

공감하는 감성

집단의 지성

변칙노우



실천하는 열정

함께하는 지식나눔

거창하지 않아도
무언가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꿈이 있는

*안내 : [해당 시기의 주요 작업 및 태도]

* 해당 참조 URL

시도하다 at · tempt (to do) : 거창하지 않아도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이 한가지로 가치는 충분했다.



눈이 오던 12월 옥탑방에서 시작한

서울에서의 자취생활도 어느덧 2년이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 나와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
설겅이부터 했다.
주말엔 DIY가구점에서 일했다. 이곳은 무보수였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하교길 학생들, 길가를 지나는 행인들, 모두가. 내겐 섬김의 대상이었다.
부끄러울 것도 없었고 힘들 것도 없었다.
스물 일곱이니까 도전할 수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헛되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라 생각했다.
집단의 지성을 꿈꾸는 normalstory는 그렇게 현실이 되었다.

이십팔세

한참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과도한 의욕이 때론 촌스러워 보이기도하지만
그 파워풀한 열정과 의욕은
나이가 말해주는 시각적인 늙양스만큼이나
강력하면서 시원스런 매력을 지니고 있다.

대치동에서 멀티샵을 운영할 때도 이와같은 마음이었다.

하나의 취지를 세우고 그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나 둘 기획하고 실행하는것. 비록 그것이 곧바로 수익과 연관되지 않아도
목적에 충실한 커뮤니티에서 집단의 지혜를 꿈꾸는, 그런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진행했던 또는 진행할 수 있었던 마케팅의 실체는 그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면서도 상당히 불안
요소가 많은 브랜드 컨설팅 전략중 하나 이거나 규모가 큰 회사의 보다 나은 이윤 창출 및 컨셉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
했다. 두꺼운 마케팅 서적에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 원론적이거나 실제 사회 대다수를 찾아하고 있는 자영업과 같은 소규모
매장에서는 정말 말뿐인 이론이라 느낄 수 밖에 없는 것들 뿐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만 떠들던 내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준 두권의 책이 있다.

생각의 탄생과 유나티스브랜드가 그것이다. 한 권의 책은 유연하고 도전적인 생각과 행동의 연관관계와 그로인해 긴밀히
발생되는 긍정적인(때론 도전적인) 생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른 한 권은 늦각이 복학생이지만 대학원과 MBA를
고민하는 한 애독자에게, 결국 그곳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어느 회사 또는 기업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열악한 조건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최고의 경영 공부를 원한다면 직접 필드에 나가 작은 돈으로
라도 좋으니 직접 장사를 하면서매일같이 많은 책들을 읽어라.

매장은 비록 작고 외진곳에 있었지만 그 혼한 간판도 달지 않았고 전단 또한 돌리지 않았다. 기성의 홍보활동이나 시각적
으로나 심리적으로 주변을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영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이었다. 다만,
허름했던 공동 화장실을 청소하고 깨진 유리창 위에 색을 입히고 오래된 벽엔 그림을 그리고 매주 편지를 써서 붙였다.
일상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다. 누가 가져가고 누가 읽을지 모르지만 평범하고 매일 지나치지만 소중한 작은 사실들..

그것이 노멀스토리이고 리얼스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양한 개성 넘치는 신인 작가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의류, acc, 등등 다양한 작가들과 그 제품 구성으로 카페는
인테리어적 요소를 주면서도 약간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더불어 다른 매장들과 다른 독창적인 공간을 구성 할 수 있었
다. 온라인과 다른 지역의 매장(공동 마케팅 지원 및 참여매장)에서도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 줌으
로써 작가들에게 보다 다양한 판매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폭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작가들의 요구와 목적을 고려하여 다른 작가와의 공동프로젝트들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그 중 가장 보람되었던 것은 일상에서 그저 일상을 보내던 손님들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들교육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병원에 다니던 아주머니께서 병원을 끊고 비즈 공예 선생님이 되어 다른손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찾을 수 있었고 영어를 싫어하던 중학생들이 외국인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그림
을 그리고 한국에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내던 외국인 강사들은 친구들을 만날수있었다.겉으로 깐깐해보이던 교수님들도 파
티에 참석하셔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수있는 공간이었고 부모님 몰래 홍대에서 공연을 하던 고등학생이 떳떳히 음
반을 만들어 카페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부모님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마술을 공부하던
고등학교 4학년 학생, 키는 아주 컸지만 비교적 말수가 적고 차분히 기타를 가르치던 대학생, 지방에서 수능때문에 자취
생활을 하던 고등학생들, 영어공부를 하러온 취업재수생.. 등등

정말 많은 인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상을 다 안다는 듯이-

비판하고 반항하고 거칠었던
정체성의 시간이 다소 경과하고

약간의 유머러스함과
보다 둥글둥글해진 성격

하지만,
삶에 대한 중요함과 진지함

그리고 멋을
조금씩 깨닫는 나이

아., 인생

29

간결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다.
넓은 공간감을 이루어
가족의 응석을 받아 줄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담담히 어른으로서의 길을
걷고있다.

세련되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짠-하게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색을 입다 -



안녕하세요!
서로를 알고 있는
일상-이 UX 기획자
사내, 변찬우입니다!

[학습에 대한 늦바람이 불다]

<http://bit.ly/JVe6bU>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치즈 케이크의 풍부한 맛처럼 브라운에 대한 기획을 경험하고, 스트로베리 시럽과 같이 입맛을 자극하는 서비스디자인, HCI, UX 스토리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학습을 통해 복지리더들을 위한 안구 마우스 개선 프로젝트(국회.디자인라이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BACK NO32

그 동안의 나를,
앞으로의 나를
살피다

WHY

누군가에게 그가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갖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있는 삶

How

자신에게 부여된 집단과
일상이 주는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서비스와
내부 구성원 간의 문화 마련

WHAT

온/오프라인,
개인과 단체,
남녀노소,
빈부와 인종을 개념치 않는
지속가능한 모델

인사이트

1. 메가트랜드 : 예술의 대중화, 이지&이코노미 픽시
2. 수익 창출 : 서비스 플랫폼 BM, 자발적 AD노출,
3. 서비스 유형 : 커버전시 디버전스

내 삶의 페르소나

0. 행복한 남편
1. 코딩하는 기획자
2. 일상 예술가(그림, 커피, 차, 시, 수필)
3. 생활 UX 기획자
4. 일상 서비스 디자이너
5. 인디작가(음악, 일러스트, 수필)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브랜딩 멘토

[서비스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다]

<http://bit.ly/TJpJtl>

세 삼

내 나이 ,
삼삼한 서른셋

세삼 ,
내가 아닌 주변을
생각하게 되는 나이
스트라이커보다
원손의 맛을 아는
미드필더가
더 멋있어 보이는 나아

세삼 ,
사소한 일상에도 고마운
나이
삼삼한 나이 . 서른셋
나이

